

#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비교 문화적 연구

## Cross-Cultural Study of Successful Aging in Korean and Western Society

이화여자대학교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박 사 백 지 은\*

교 수 최 혜 경\*\*

Dept. of Consumer Science and Human Development, Ewha Womans Univ.

Ph.D. : Paik, Jee-Eun

Professor : Choi, Hye-Kyoung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elements of successful aging in Western and Korean society using a background of time and dominant values of each society. Content analysis of concepts and components of 'successful aging' was performed based on 12 Korean articles and 23 Western articles. The major findings were: (1) The studies of successful aging accomplished since 2001 and the studies that explore the elements of successful aging perceived by the elderly mentioned diverse elements as essential to successful aging. (2) There were both common and distinct components of successful aging in Western and Korean society. Some of the essential components for successful aging were commonly accepted, but others were varied and unique, reflecting the period of experience and cultural values. These results could be used to better understand unique successful aging of the Korean elderly, as well as to establish a basis of intervention that meets the specific demands of this population.

---

▲주요어(Key Words) : 성공적 노화(successful aging), 비교문화적 접근(cross-cultural perspectives), 시대적 경험(period experience), 문화적 가치(cultural value),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 I. 서 론

한국은 2006년 현재 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의 9.3%로 급격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통계청, 2006). 이러한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는 노인의 수적인 변화 뿐 아니라 보다 건강하고 활동적이며 자신의 삶에 잘 대처하

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노인의 모습으로의 변화와 같은 질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연장된 노년기와 긍정적인 삶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는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켜왔으며, 노년기, 더 나아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야 할 목표와 같은 것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은 보편적으로 적용되더라도, 성공적 노화를 나타내는 삶의 지표는 문화적인 특수성을 지닐

---

\* 주 저 자 : 백지은 (E-mail : whiteje9@hanmail.net)

\*\* 교신저자 : 최혜경(E-mail : chk@ewha.ac.kr)

수밖에 없다(최혜경 등, 2005; Ryff, 1989; Stern & Carstensen, 2000; Vaillant & Mukamal, 2001; Wong & Watt, 1991). 예를 들어, 최혜경 외(2005)에 따르면 한국노인들은 유교 문화권에서 살아오면서 집단주의적이고 관계지향적인 전통적 가치관을 내재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의 관련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는 성공적인 노화가 사회적 속성을 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각 사회, 문화적인 체계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 구성요소가 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 개념의 복잡성과 문화에 따른 차이에 대한 문제는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듯 몇몇 연구(백지은·최혜경, 2005; 최혜경 외, 2005; Collings, 2001; Ikels et al., 1995; Keith et al., 1990; Tate et al., 2003; Tornstam, 1994; Torres, 1999, 2002)에서 각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의 구성요소나 중요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성공적인 노화에 관한 개념 정의나 체계적인 학문적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이루어진 소수의 연구들 또한 서구이론의 고찰에 그치고 있어 한국노인들의 성공적 노화를 대표하는 구성요소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서구사회와 한국사회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각 사회의 고유의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서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연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있지 않은 상태이다.

고령 한국사회는 현대사회의 특성과 함께 한국사회 고유의 역사적, 문화적 맥락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고령 한국사회에서 노인들의 요구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성공적인 노화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비교문화적인 연구를 통해 고령사회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을 규명할 뿐 아니라, 한국사회 고유의 맥락에서 이들만의 고유한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비교문화적인 연구의 주요 목적은 문화를 비교하는데 있어 유용한 개념과 각 문화의 고유의 개념을 밝히는 것이다(Dana, 1993). 이에 본 연구는 비교문화적인 관점에서 서구사회와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진 성공적 노화 연구에서 파악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는 무엇이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는 각 사회의 시대적 경험과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함께 한국 노인 고유의 성공적 노화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한국 노인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사회에 적절한 실천방향을 탐색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성공적 노화

‘성공적 노화’라는 용어는 널리 사용되어왔으나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식이 학자들마다 다르기 때문에 성공적 노화 개념의 정의를 내리고 그 구조를 측정하기 어렵다. 지금까지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 1)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론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론들을 살펴보면, 노년기에도 활동성의 유지를 강조하는 이론들과 노년기의 주관적 지각을 강조하는 이론들, 그리고 성공적인 노화에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론들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활동성 유지를 강조하는 경향의 이론들로서 Rowe와 Kahn(1998)의 성공적 노화 모델이나, 생산적 노화(Productive Aging)의 개념, 건강한 노화(Healthy Aging)의 개념들을 들 수 있는데 이는 계속 유지되는 활동성을 성공적으로 노화하는 것으로 간주한다(Martha & Meredith, 2003; Martha et al., 2002). 이 중 Rowe와 Kahn(1998)의 성공적인 노화 모델이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데, Rowe와 Kahn(1998)은 성공적인 노화를 위해 첫째, 질병 및 장애와 관련된 위험수준이 낮아야 하며, 둘째, 높은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유지하고, 셋째, 적극적인 인생 참여의 태도를 지닐 것 등 세 가지 행동요소들을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노인 자신의 주관적인 지각을 강조하는 경향은 유리이론, 자아발달이론, Gerotranscendence 이론과 관련이 있다. 유리이론에서는 성공적 노화가 사회에서 활동적인 역할에서 물러나는 것을 개인이 수용하는 데에 달려있다고 가정하며(Wray, 2003), 자아발달이론은 생활만족도와 삶의 의미, 삶의 목적감 같은 주관적인 요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Costa et al., 1992; Wong & Watt, 1991). 특히 최근에 관심을 받고 있는 Gerotranscendence 이론 중 인식적인 노화(Conscious Aging)의 개념은 적극적인 사회참여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리이론과 비슷하지만, 단순한 사회역할로부터 물러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삶의 유형 속에서 자기 삶의 의미를 찾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이론은 성공적 노화는 환경적 요구에 대응하여 노인이 활동수준이나 삶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Baltes, 1993; Ryff, 1989). Baltes와 Baltes(1993)는 보상을 수반한 선택적 적정화(SOC)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SOC 모델에서 성공적 노화란 획득을 최대화하고 상실을 최소화하는 개인-환경간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과정으로 개념화함으로써 여러 면에서 감소와 쇠퇴를 경험하는 노인들이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

## 2) 성공적 노화 이론 검증 연구

기존의 성공적 노화 이론에 기반하여 연구자가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과 구성차원을 미리 가정하고 수행하는 연구들은 학자들이 개인의 발달과 지위에 입각하여 제시한 틀 속에서 검증하는 것이므로 확실적인 기준을 제공하며 객관적인 지표에 치중하여 파악하고 있다. 또한 Rowe와 Kahn(1998)의 성공적인 노화 모델을 검증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성혜영, 조희선, 2006; Crowther et al., 2002; Strawbridge et al., 2002)이며, 이들 연구에서 일관성 있게 발견되는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는 신체적 기능, 인지적 기능, 심리적 안녕, 사회통합이다. 예를 들어, 성혜영과 조희선(2006)은 Rowe와 Kahn(1998)의 성공적 노화 요소를 기반으로 생산적 활동,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다양한 사회관계망과 지지 기반 확보로 구성된 모델을 세웠으며, Chou와 Chi(2002)는 노인의 성공적인 노화를 기능적인 상태, 정서적인 상태, 인지적인 상태, 생산적인 참여 상태를 포함한 4차원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은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이 문화에 따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Torres, 1999), 모든 노인이 동일하게 달성해야만 하는 이상적인 기준으로 여기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 3) 성공적 노화에 대한 지각 연구

마지막으로 노인들 스스로가 성공적 노화의 삶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에 기반한 연구들을 살펴볼 수 있다. 오늘날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의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점차적으로 환경, 문화적인 영향을 강조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서서히 일고 있다(Torres, 2002). 이들 연구들로는 Q-방법을 사용하여 성공적 노화 개념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성혜영과 유정현(2002)의 연구, 한국노인들이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에 대해 서울, 경기지역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백지은과 최혜경(2005)의 연구와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노인들이 살아온 과정과 경험을 질문하고 그러한 과정과 경험 속에서 성공적인 노화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조사한 최혜경 외(2005)의 연구, 2차 세계대전 캐나다 공군퇴역 군인 3,983명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의 정의를 무엇이라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Tate 등(2003)의 연구와, Collings(2001)의 '성공적인

노화'와 '비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정의를 묻는 연구 등이 있다. 예를 들어 Collings(2001)의 연구에서 노인들은 성공적으로 노화하는 노인을 단순히 건강 상태가 아니라, 오히려 건강의 감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느냐에 의해 평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성공적 노화의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가치지향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개개인의 경험 및 문화에 따라 성공적인 노화에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나 그 인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성공적 노화를 이루는데 있어 중요하게 언급되는 요소들은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초기 연구와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 그리고 노인들의 기대 관점에서 성공적 노화를 이해하고자 하는 최근의 연구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연구시기와 연구목적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 2. 성공적 노화와 문화적 차이

성공적 노화의 개념은 사회·문화적으로 만들어진 구조이며, 다양하고 복합적인 특성을 갖는 개념이기 때문에 성공적 노화가 문화에 따라 어떻게 다른 의미를 갖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Ikels et al., 1995, Keith et al., 1990; Torres, 1999; 2002). 또한 Tornstam(1994)은 성공적 노화가 개념화되는데 있어 그 사회의 가치체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면서, 성공적 노화라는 개념에 대해 현실의 사회적 구조 또는 가치체계를 고려하지 않고서는 정보가 제한될 수밖에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결과를 심리측정학적인 특성이나 구조가 다른 집단으로 일반화 하는 것은 위험하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해있는 사회의 문화적인 가치를 동화시킴으로써 성공적 노화의 구조를 이해하기 때문에(Torres, 2002) 문화적인 가치관에서 강조하는 바가 성공적인 노화의 구조가 이해되어진 방식에 반영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 1) 서구 노인의 시대·문화적 경험

산업·정치·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서구사회의 주요 국가들이 강력한 미국화의 과정을 거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을 중심으로 변화해가고 있는 실정이다(Taylor, 2000). 이에 서구사회의 전반적인 시대·문화적인 경험을 미국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0세기 서구사회의 현 노인들이 경험한 커다란 시대적, 역사적 시기는 크게 다섯 시기로 구분해볼 수 있다. 먼저 산업화 이전 시대에 노인들은 연장자의 권리가 존중되었으며, 노인을 공경해야 한다는 윤리 속에 구체화된 사회적

이점들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산업화의 확장과 함께 일과 개인 업적을 중요시하게 되면서 이러한 변화는 경쟁 사회를 낳았으며, 커뮤니티와의 조화 보다는 개인의 성취, 창조력이 훨씬 더 중요시되었다. 또한 산업사회의 노동의 중요성은 서구사회에서 노동이 신성하다는 가치관을 만들었으며, 근면은 주요한 덕목으로 칭송되어왔다. 따라서 열심히 일해서 많이 벌고 남도 돕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졌다.

1930년대는 서구 산업국가에서의 비참한 몰락이 일어났다. 하지만 공황은 복지에 대한 연방 역할 출현, 사회보장의 도래 등을 통해 노인의 지위가 보다 희망적으로 변화하였다.

1940년부터 1960년까지 노인인구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노인들을 노동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였다. 또한 이때 미국은 거대한 번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 경제적인 번영으로 보다 삶의 질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연방정부가 사회복지에 대한 책임을 점점 넓혀가는 시기로, 노인 및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재정적 지원, 서비스들을 연방정부로부터 이끌어 냈다.

하지만 1980년대에 와서는 연방정부의 역할이 제한되고 침체된 경제상황으로 인해 사회복지와 의료보호의 혜택들이 감소되었다.

또한 서구의 노인들과 한국의 노인들을 구별하는 가장 현저한 문화적 특성은 바로 기독교적 전통이다. 교회제도는 공동체 중심으로 편성 운영되는 것 같은 인상이 짙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기본단위는 개인이며 개인이 주체가 되고 있다. 그것은 서구 가치관의 핵심이다. 신앙생활뿐 아니라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개인이 기본 단위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모든 권리와 의무 이행의 독립적 단위가 되고 있다. 또한 인간의 활동이 현재 상황에서 더욱 열심히 사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세상에서의 바람직한 삶이란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사업에 몰두할 것, 그리고 이윤을 남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를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다.

## 2) 한국 노인의 시대·문화적 경험

조성남 등(2000)에 따르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현 한국노인들이 경험한 시대·역사적 시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일제 식민지 경험 속에서 우리사회는 피폐해졌으나, 이 시기는 봉건적인 잔재와 외세에 의한 근대화 수행이라는 이중적이고 모순된 구조 속에서 일반 국민들의 삶 역시 과도기적인 양상을 띠었다. 민족과 전통에 대한 끈을 이어가려는 노력과 함께 한편으로는 서구적이고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공존하였다. 또한 국가의 존립이 심

하게 흔들린 시기로 공적 영역 대신 '가족 단위 중심의 생존'중요시되었던 시기라 할 수 있다(조혜정, 1986).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 본격적인 분단시대에도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부담이 가장 적고, 모두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바로 가족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자리 잡아서 가족 집단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성향이 강화되었다(신수진, 2002). 한국전쟁이후 불안한 정치·사회상황 속에서 5·16 군사혁명을 통해 독재체제를 확립한 박정희 정권은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경제개발을 통해 전반적인 국민경제수준을 높였다. 이 시기에 남성들은 사회적인 성공과 출세를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고, 여성은 남편의 출세를 위한 내조, 성공적인 자녀교육을 위해 열심히 뛰는 시기였다(신수진, 2002). 하지만 60, 70년대의 경제개발은 풍요라는 물질적 기반을 제공해 주었으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은 드디어 80년대의 민주화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나긴 군사정권의 여정을 끝내고 90년대의 문민정부를 탄생시켰다. 90년대 문민정부의 등장 이후 경험한 큰 사건 중 하나는 80년대에 실시한 산업구조조정과 금융정책의 실패 등으로 인한 IMF이다. 이로 인해 가장이 직장을 갑자기 잃게 됨으로 인해 가정 내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감이 증폭되고, 불화로 인해 이혼율이 증가하고, 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한 맞벌이 부부 증가로 출산율이 현격히 감소하고 있다.

또한 한국사회에서 중요시되는 성공적 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노인들의 삶에 대한 가치에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강하게 영향을 미친 한국 고유의 전통적 가치관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유교주의다(조궁호, 2003; 한규석, 2002).

유교에서 자연은 완전한 존재로 인간이 순응하고 본받아야 할 모범이 된다(이영찬, 2002). 하늘에서 비롯된 '천도'를 바탕으로 자연과 인간 모두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원리를 찾고, 거기에 근거하여 인간의 해야 할 바를 설명하고자 했다(신수진, 2002).

유교에서 인간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사회와의 조화로운 관계를 중시하는 도덕적, 실천적 측면이 강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유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이성적인 지식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로 능동성과 주체성을 가지며, 이를 잘 간직하고 길러서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조궁호, 2003). 이러한 유교적 사상의 영향을 받아 한국노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조화로운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으며, 노후에도 자신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유교의 사회관은 차별적·차등적인 특성을 갖는다. 그에 따라 다양한 상(相)이 있고, 어떠한 기를 받았는가에 따라

특성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이(理)와 기(氣) 두 원리의 작용으로서 생겨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은 모두 천차만별이다. 그리하여 인간, 사회관계를 비롯한 모든 천지만물은 이러한 분별적 질서에 바탕하여 각각 제자리를 보존할 때 고유한 성(性), 즉 보편적 이(理)에 입각한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을 도출하는데 반드시 고려해야 할 또 하나의 사상이 '가(家)'이다. '가족관계'가 모든 사회관계의 전형이고, 유교주의적 삶에 있어서 가(家)는 개인에 우선하고 시간을 초월하는 독자적인 조직으로 존재한다(이환, 1999). 개인은 '家'를 통해 자신의 존재원리를 터득하게 되고, 가족 안에서의 역할을 통해 자신의 완전해짐에 도달가능하게 된다. 이러한 유교적 가족주의 하에서 가족구성원은 미분화되어 있어 개인의 자기완성이나 자아실현 보다는 관계 안에서의 자기완성과 자아실현을 이상으로 여겼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 한국 노인들은 식민지 상황에서 강력한 민족주의 의식을 내면화 한 세대이며, 근대화 와 한국전쟁 등을 겪은 세대로 보다 가족 집단주의가 강화되었으며, 또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재건을 위해 온 힘을 쏟은 세대로 유교주의 가치관에 의해 영향을 받아 권위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이며, 가족중심적인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크게 탈피하지 못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시대·문화적 경험은 개인의 삶에 대한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임희섭, 1994; 황상민, 김도환, 2004). 따라서 산업화 이전의 노인존경사회, 산업화, 경제적 공황과 번영, 연방정부의 개입, 기독교 전통 등의 영향을 받은 서구사회와 식민지시대, 6·25전쟁, 경제개발계획, 민주화 운동, 유교주의 전통 등의 영향을 받은 한국사회의 노인들의 서로 다른 경험은 이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에 반영되어 각 사회마다 고유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 사료된다.

성공적 노화는 노인들이 오랜 세월을 거쳐 살아온 자신의 상황과 경험에 따라 다르게 기대되어지고 이해되어지는 것(백지은·최혜경, 2005; Collings, 2001; Tate et al., 2003; Torres, 2002)으로, 각 사회에서 노인들의 기대를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는 성공적인 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각 고유의 문화적인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성공적 노화를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단일한 개념으로 여기지 말고,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초기 연구에서부터 최근 연구까지 연구시기와 연구목적에 따라,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에서 중요시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차이점과 공통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각 사회의 문화

적 가치와 사회변동경험에 기반하여 해석하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III. 연구방법

#### 1. 내용분석대상 및 절차

내용분석은 원래 커뮤니케이션 분석에서 주로 단어와 주제의 발생빈도를 알아보는 양적 분석의 형태로 시작된 것으로 Berelson(1952)의 정의에 따르면 내용분석이란 "명시적인 커뮤니케이션 내용을 객관적, 체계적 그리고 계량적으로 기술하는 연구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의 성공적 노화의 유사성과 상이성을 분석하고 시대적 경험 및 문화적 가치관과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해 '양적 내용분석(Quantitative Content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서구사회와 한국사회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들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한 이유는 내용분석은 접근하기 어려운 연구대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고, 분석해야 할 표본을 되도록 많이 확보할 수 있어 분석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Berelson, 1952). 연구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진행하였다.

첫째, 지금까지 성공적 노화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연구한 논문들을 파악하기 위해 '성공적 노화', 'Successful Aging'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내·국의 연구문헌과 논문들을 검색하였다. 그 결과 1984년 Erikson의 저서를 필두로 2006년 현재까지 성공적 노화의 개념, 차원 및 구성요소와 관련된 국내연구 12편, 국외연구 23편이 검색되어 총 35편을 최종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표 1>).

둘째,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에서 수행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유목은 자료종류, 연구년도, 연구목적, 조사방법, 자료분석방법, 연구대상자 연령 등이다.

셋째,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에서 수행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에서 파악된 성공적 노화의 차원 및 구성요소들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분석대상이 된 연구들의 결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총망라한 목록(exhaustive lists)을 파악하였다(<표 1>). 그 결과 총 197개의 구성요소들이 추출되었으며, 이후 각 구성요소들에 관한 범주를 만들었더니, 총 28개의 범주가 설정되었다. 이후 코딩과정을 거쳐 각 구성

&lt;표 1&gt;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

내용분석자료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홍현방 (2001)	심리적인 발달: 자아개념, 통제소재, 자아통합(지혜)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접촉, 가족과의 접촉 신체적인 건강: 질병 유무, 기능 정도, 주관적인 평가 정신적인 건강: 질병 유무, 기능 정도,
김은숙 · 김귀분 (2002)	대접받는 삶, 행복한 삶, 평안한 삶, 독립적인 삶, 경제적 자립, 만족한 삶, 의지하고 싶은 마음, 봉사하는 삶, 뼈대 있는 가문, 행복한 끝맺음
박경란 · 이영숙 (2002)	자율, 개인성장, 안락한 생활, 역할 완수, 자아수용, 상호교류, 봉사
성혜영 · 유정현 (2002)	사회적 관계 유지 및 적응, 정신적 신체적 기능유지, 삶의 만족, 복지혜택 및 편함, 경제적 준비, 질병 예방, 가족 간의 관계
강 인 (2003)	신체적 건강, 개인성장, 정서적 안녕, 자율성, 가족지향, 경제적 안정
국내 연구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2003)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노인 : 가족 속에서 자식과의 관계,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봉사를 통한 자리매김, 동년배 관계 자식에게 “폐”끼치지 않는 노인 : 건강(신체적 독립), 경제적 자립 깨끗한 노인 : 너그러운 노인, 존경받는 노인
김미혜 · 신경림 · 강미선 · 강인 (2004)	부부 복, 자녀 복, 친구 복, 재산 복, 여가 복, 건강 복, 죽음 복, 거처 복, 마음 복
고대선 · 원영신 (2005)	질병피해가기, 활동적인 인생참여, 신체적 기능 유지하기
김미혜 · 신경림 (2005)	자기 효능감을 느끼는 삶,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삶, 부부 간의 동반자적 삶,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백지은 · 최혜경 (2005)	일상의 순조로움, 자기관리, 사회적 자원의 확보, 과시성
최혜경 · 백지은 · 서선영 (2005)	- 상층 : 중용으로서의 삶 (어딜가도 떳떳하다, 아무에게도 짐이 되지 않는다, 욕심을 버린다, 시간을 보람있게 잘 보낸다, 자식이 잘 컸다) - 중층 : 자식에게 투영된 삶(자녀의 성공은 나의 노력이며 나의 꿈, 자녀로 인해 부러움을 산다) - 하층 : 내 한 몸 추스르는 삶
성혜영 · 조희선 (2006)	생산적 활동,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다양한 사회관계망과 지지 기반 확보
Erikson (1984)	자아통합, 심리적 평안 integrity, psychological peace
Ryff (1989)	자기수용,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자율성, 환경의 통제력, 삶의 목표, 개인의 성장 self-acceptance, positive relations with others, autonomy, environmental mastery, purpose in life, personal growth
Baltes & Baltes (1993)	수명,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인지적 효능감, 사회적 유능성과 생산성, 통제감, 생활만족도 (SOC model) length of life, biological health, mental health, cognitive efficacy, social competence and productivity, personal control, life satisfaction
국외 연구 Vaillant (1993)	신체적 건강, 심리사회적 적응 physical health, psychosocial adjustment
Fisher (1995)	타인과의 상호작용, 목표의식, 자기수용, 개인적 성장, 자율성, 생산성 interactions with others, sense of purpose, self-acceptance, personal growth, autonomy, generativity
Freund & Baltes (1998)	주관적 안녕감, 긍정적인 감정, 외로움이 없는 것 subjective well-being, positive emotions, absence of feelings of loneliness
Rowe & Kahn (1998)	질병과 질병 관련 장애의 위험이 낮은 상태,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 삶에 대한 활동적인 참여 low probability of disease and disease-related disability, high cognitive and physical functional capacity, active engagement with life,
Fisher & Specht (1999)	목표의식, 타인과의 상호작용, 개인적 성장, 자기수용, 자율성, 건강 sense of purpose, interactions with others, personal growth, self-acceptance, autonomy, health

<표 1> 계속

내용분석자료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국외 연구	Guse & Masesar (1999)	가족 및 친구들과의 상호작용, 개인의 성격 특성, 안녕감 측면, 봉사 interaction with family and friends, personal qualities, aspect of well-being, being helpful	
	Collings (2001)	자연적 측면(건강, 독립적인 삶, 신체적 활동), 가정적 측면(가족관계), 경제적 측면(경제적 지지), 태도 측면(정신건강, 지역 사회의 존경, 지혜의 전수) nature aspect(health, independent life, physical activity), family aspect(family relationships), finance aspect(financial support), attitude aspect(psychological health, respect of community, handing down of wisdom)	
	Friedrich (2001)	생물학적 차원, 심리적 차원, 사회적 차원 biological domain, psychological domain, social domain	
	Charbonneau-Lyons, Mosher-Ashley & Stanford-Pollock (2002)	사회 & 가족관계, 내재성, 재정적 관심, 성취, 인지적인 기능, 독립성, 신체적 외모 social & familial relationships, intrinsic values, financial concerns, accomplishments, cognitive functioning, independence, physical appearance	
	Chou & Chi (2002)	기능적인 상태, 정서적 상태, 인지적 상태, 생산적인 참여 상태 functional status, affective status, cognitive status, productive involvement status	
	Crosnoe & Elder (2002)	가족참여, 직업성공, 시민역할 참여, 생활만족도, 활력 family engagement, occupational success, civic involvement, life satisfaction, vitality	
	Crowther, Parker & Achenbaum (2002)	질병과 질병 관련 장애의 위험이 낮은 상태,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과 신체적 기능, 삶에 대한 활동적인 참여, 긍정적인 영성 low probability of disease and disease-related disability, high cognitive and physical functional capacity, active engagement with life, positive spirituality	
	Strawbridge, Wallhagen & Cohen (2002)	질병, 장애, 위험요인이 없는 것, 신체적 · 정신적 기능 유지, 삶에 대한 활동적인 참여 ansence of disease, disability, and risk factors, maintaining physical and mental functioning, active engagement with life	
	국외 연구	Knight & Ricciardelli (2003a)	자기수용, 융통성, 노화에 대한 태도와 적응력 self acceptance, flexibility, attitudes to ageing and adaptability
		Knight & Ricciardelli (2003b)	건강, 행복감/충족감, 관계, 개인 성장, 독립성, 장수, 활동, 인생의 가치/평가 health, happiness/contentment, relationships, personal growth, independence, longevity, activity, appreciation/value of life
Tate, Lah & Cuddy (2003)		건강, 생활만족도, 활동유지, 신체적 활동, 긍정적 태도, 가족, 독립성, 정신적 활동, 수용, 식·요법, 사회적 활동, 목표의식, 재정적 안정, 취미활동, 봉사활동 및 생산성, 만족감, 유머 HEALTH, SATISE, ACTIVE, ACTPHY, POSATT, FAMILY, INDEPE, ACTMEN, ACCEPT, MODERA, DIET, ACTSOC, GOALS, SECURE, INTRST, USEFUL, CONTNT, HUMOUR	
Hanson (2004)		활동성,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참여 remain active, involved as contributing members of society	
국외 연구	Phelan, Anderson, LaCroix & Larson (2004)	신체적 건강, 기능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건강, 새로운 것 학습 physical health, functional health, psychological health, social health, learning new things	
	Robson, Jones, Reynolds & Hansson (2004)	인지적 능력, 적응력, 긍정적인 관계, 직업적 성장, 직장에서의 사적보호 intellectual abilities, adaptability, positive relationships, occupational growth, personal security at work	
	Matsubayashi, Ishine, Wada & Olumiya (2006)	가치감, 신체적 건강, 기능적 건강, 심리적 건강, 인지적 건강, 사회적 건강, 영적(종교) 건강 sense of value, physical, functional, psychological, intellectual, social, spiritual health	

요소들을 범주 내에 포함시켰다. 예를 들면, 신체적 건강, 질병피해가기, 신체적 기능 유지하기, 건강복, 건강,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physical health, biological domain, health 등과 같은 구성요소는 '신체적 건강, 신체적 기능유

지'라는 범주로 통합하였다. 범주화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본 논문의 저자와 사회학 전공의 석사과정 학생 1명이 서로 '교차검사'를 하고 노년학 및 노인복지학 교수 5명이 최종검사항으로써 분석자간 일관

성을 확인하여 최종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IV. 연구결과

1.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의 성공적 노화 연구의 특성

'성공적 노화'와 'Successful aging'이라는 용어로 검색·수집한 연구 중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및 차원에 대한 국내 및 국외연구 총 35편의 특성은 <표 2> 및 <표 3>과 같다.

전체 내용분석 자료는 국내연구 12편과 국외연구 23편으로, 이 중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및 차원에 대해 책으로 발간된 저서에 해당하는 자료는 국내에는 없었으며 서구 자료로는 5편이었다. 또한 학술지 논문으로는 국내 12편과 국외 18편이 있었다. 연구년도를 살펴보면 국내 연구들은 모두 2001년 이후에 이루어진 반면(100%),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대해 서구사회에서는 1980년대부터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 지금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볼 때 현재까지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서구에서 보다 빨리 시작되었으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2001년 이후 최근에 들어서 급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연구목적에 따라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식에 따라 살펴본 결과,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이론 확립 연구는 국외 연구 4편에 불과했으며, 이러한 이론들을 검증하고, 이론에 기반하여 성공적 노화의 개념 및 차원을 미리 가정하고 수행한 연구가 국내 2편, 국외 7편이었다. 이 중에서 Rowe와 Kahn(1998)의 성공적 노화의 세 가지 차원을 검증한 연구가 국내 1편, 국외 2편이었으며, Baltes와 Baltes의 SOC모형을 검증한 연구가 국외 1편, 그리고 이전의 성공적 노화 관련 이론들이 언급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기반하여 수행한 연구가 국내 1편, 국외4편이었다. 다음으로 노인들 스스로가 성공적 노화에 대해 어떻게 지각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구성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연구로 국내 10편, 국외 12편이었다. 여기에서 볼 때, 지금까지의 연구들이 성공적 노화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각 문화권에 따라 이들 노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노년기 삶

<표 2>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의 성공적 노화 연구 특성

<N=35>

		N (%)				전체	
		한국 (12)		서구 (23)			
자료종류	책 저서	0	(0.0)	5	(21.7)	5	
	학술지 논문	12	(100.0)	18	(78.3)	30	
연구년도	1984~1990년	0	(0.0)	2	(8.7)	2	
	1991~2000년	0	(0.0)	7	(30.4)	7	
	2001~2006년	12	(100.0)	14	(60.9)	26	
연구목적	이론확립	0	(0.0)	4	(17.4)	4	
	이론검증	Rowe & Kahn	1	(8.3)	2	(8.7)	3
		Baltes	0	(0.0)	1	(4.3)	1
		Ryff	0	(0.0)	0	(0.0)	0
		문헌고찰시 추출된 요소	1	(8.3)	4	(17.4)	5
지각연구	10	(83.3)	12	(52.2)	22		
조사방법	문헌고찰	1	(8.3)	4	(17.4)	5	
	일대일 인터뷰	7	(30.4)	10	(43.5)	17	
	구조화된 설문지	4	(33.3)	7	(30.4)	11	
	통합연구	0	(0.0)	2	(8.7)	2	
자료분석 방법	내용분석	3	(25.0)	11	(47.8)	14	
	현상학적 방법	5	(41.7)	3	(13.0)	8	
	통계적 검증	4	(33.3)	7	(30.4)	11	
	통합분석	0	(0.0)	2	(8.7)	2	
연구대상자 연령	중년기 성인	2	(16.7)	1	(4.3)	3	
	60세 이상 노인	1	(8.3)	7	(30.4)	8	
	65세 이상 노인	8	(66.7)	7	(30.4)	15	
	70세 이상 노인	0	(0.0)	2	(8.7)	2	
	기타 (문헌, 관찰)	1	(8.3)	6	(26.1)	7	



<표 3> 한국과 서구연구의 연구년도별 연구목적

<N=35>

		N (%)			전체
		이론	이론검증	지각연구	
한국 (12)	1984~1990년	0(0.0)	0(0.0)	0(0.0)	0
	1991~2000년	0(0.0)	0(0.0)	0(0.0)	0
	2001~2006년	0(0.0)	2(16.7)	10(83.3)	12
서구 (23)	1984~1990년	2(100.0)	0(0.0)	0(0.0)	2
	1991~2000년	2(28.6)	4(57.1)	1(14.3)	7
	2001~2006년	0(0.0)	5(35.7)	9(64.3)	14

의 조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노인들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데 있어 어떠한 구성요소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지각연구가 보다 많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공적 노화에 관한 연구의 목적에 따라 조사방법과 자료분석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노인들이 지각하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인터뷰를 통해 그들이 살아온 삶 속에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찾아내거나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공적 노화의 삶에 대한 모습을 질문함으로써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추출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일대일 인터뷰를 통해(국내 7편, 국외 10편) 현상학적 해석방법이나 빈도를 통한 내용분석 방법을 수행하거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들에 대한 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통계적 검증 절차를 거쳐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찾은 연구들(국내 4편, 국외 7편)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내용분석 자료의 연구대상자 연령을 살펴본 결과, 국내연구의 경우 가장 많은 비율인 66.7%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국외연구의 경우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비율이 각각 30.4%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평균수명의 연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인의 기준을 60세 또는 65세로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대상자는 노인들에게 한정되어 있으며, 노년기를 앞둔 중년기 성인을 대상으로 이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가 매우 부족함(국내 2편, 국외 1편)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및 서구의 성공적 노화 연구들의 연구년도별 연구목적에 따라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정의하고 측정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표 3>). 여기서 볼 때, 서구연구의 경우 1980년대와 1990년대 초반에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러한 이론을 검증하고 이

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성요소들을 확인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01년 이후부터 성공적 노화의 개념 및 구성요소를 일반화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으로 보다 보편화할 수 있고 특정 문화권 노인들의 고유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들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노인들이 중요하게 지각하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을 찾는 연구(64.3%)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어에서 이루어진 성공적 노화의 개념 및 차원에 대한 연구 12편은 모두 2001년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이 중 10편이 한국노인들이 중요하게 지각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들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나라 연구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가 거의 초기단계임을 보여주며, 앞서 서구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보다 먼저 시작된 서구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 문화적 차이에 의해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되는데 있어 문제가 있다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2. 연구년도, 연구목적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개념차이

앞서 <표 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연구와 서구연구의 연구년도와 연구목적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국내 및 국외 연구의 연구년도별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차이(<표 4>)와 연구목적별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5>).

먼저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에서 파악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대해 연구년도별로 그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경우 12편 모두 2001년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연구년도별 차이를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국내 연구에 대해서는 <표 6>에 대한 설명에서 다루고자 한다.

연구년도별 서구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에 있어서 차이를 살펴본 결과, 1980년대에는 성공적인

&lt;표 4&gt; 한국과 서구연구의 연구년도별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

&lt;N=35&gt;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	N (%) <sup>1)</sup>					
	1984~1990년		1991~2000년		2001~2006년	
	한국(0)	서구(2)	한국(0)	서구(7)	한국(12)	서구(14)
사회적 자원의 확보,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0 ( 0.0)	1 (50.0)	0 ( 0.0)	3 (42.9)	8 (66.7)	6 (42.9)
신체적 건강, 신체적 기능유지	0 ( 0.0)	0 ( 0.0)	0 ( 0.0)	4 (57.1)	6 (50.0)	9 (64.3)
심리적·정신적 안녕	0 ( 0.0)	1 (50.0)	0 ( 0.0)	4 (57.1)	5 (41.7)	9 (64.3)
자율성, 독립적인 삶	0 ( 0.0)	1 (50.0)	0 ( 0.0)	2 (28.6)	5 (41.7)	4 (28.6)
가족과의 원활하고 친밀한 관계	0 ( 0.0)	0 ( 0.0)	0 ( 0.0)	1 (14.3)	5 (41.7)	5 (35.7)
경제적 준비 및 안정	0 ( 0.0)	0 ( 0.0)	0 ( 0.0)	0 ( 0.0)	5 (41.7)	3 (21.4)
안락한 생활, 일상의 순조로움	0 ( 0.0)	0 ( 0.0)	0 ( 0.0)	0 ( 0.0)	4 (33.3)	1 ( 7.1)
대접받는 삶, 존경, 과시성	0 ( 0.0)	0 ( 0.0)	0 ( 0.0)	0 ( 0.0)	4 (33.3)	1 ( 7.1)
활동적인 참여, 다양한 활동	0 ( 0.0)	0 ( 0.0)	0 ( 0.0)	1 (14.3)	3 (25.0)	7 (50.0)
개인성장, 자기관리	0 ( 0.0)	1 (50.0)	0 ( 0.0)	2 (28.6)	3 (25.0)	2 (14.3)
자식이 잘 성장, 자녀의 성공	0 ( 0.0)	0 ( 0.0)	0 ( 0.0)	0 ( 0.0)	3 (25.0)	0 ( 0.0)
생산성, 자원봉사	0 ( 0.0)	0 ( 0.0)	0 ( 0.0)	3 (42.9)	2 (16.7)	7 (50.0)
자아 및 현실수용	0 ( 0.0)	2 (100.0)	0 ( 0.0)	2 (28.6)	2 (16.7)	2 (14.3)
자식이나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0 ( 0.0)	0 ( 0.0)	0 ( 0.0)	0 ( 0.0)	2 (16.7)	0 ( 0.0)
죽음복	0 ( 0.0)	0 ( 0.0)	0 ( 0.0)	0 ( 0.0)	2 (16.7)	0 ( 0.0)
장수	0 ( 0.0)	0 ( 0.0)	0 ( 0.0)	1 (14.3)	1 ( 8.3)	1 ( 7.1)
효능감,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0 ( 0.0)	0 ( 0.0)	0 ( 0.0)	1 (14.3)	1 ( 8.3)	0 ( 0.0)
역할완수	0 ( 0.0)	0 ( 0.0)	0 ( 0.0)	0 ( 0.0)	1 ( 8.3)	0 ( 0.0)
욕심을 버리는 것	0 ( 0.0)	0 ( 0.0)	0 ( 0.0)	0 ( 0.0)	1 ( 8.3)	0 ( 0.0)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 상태	0 ( 0.0)	0 ( 0.0)	0 ( 0.0)	1 (14.3)	0 ( 0.0)	6 (42.9)
목표의식	0 ( 0.0)	1 (50.0)	0 ( 0.0)	2 (28.6)	0 ( 0.0)	2 (14.3)
긍정적 시각, 태도	0 ( 0.0)	0 ( 0.0)	0 ( 0.0)	2 (28.6)	0 ( 0.0)	2 (14.3)
변화에 대한 적응	0 ( 0.0)	1 (50.0)	0 ( 0.0)	0 ( 0.0)	0 ( 0.0)	2 (14.3)
신앙심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3 (21.4)
생명력, 활력, 힘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1 ( 7.1)
지혜와 지식의 전수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1 ( 7.1)
신체적 외모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1 ( 7.1)
유머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1 ( 7.1)

주: <sup>1)</sup>N = 각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가 언급된 연구의 수

노화 구성요소에 대한 연구가 2편 밖에 없었으며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고 있는 내용 또한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심리적 안녕, 독립성, 자아 및 현실수용, 개인성장, 목표의식, 변화에 대한 적응으로 한정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990년대에는 1980년대에 언급된 요소에 더해 신체적 건강,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다양한 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

생산성, 효능감,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 긍정적인 태도, 장수하는 것이 추가적으로 중요한 구성요소로 나타났다. 이 중 특히 신체적으로 건강하고(57.1%), 심리적·정신적으로 평안하며(57.1%),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이루고 이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42.9%)이 특히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2001년 이후의 연구에서는

&lt;표 5&gt; 한국과 서구연구의 연구목적별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

&lt;N=35&gt;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	N (%) <sup>1)</sup>					
	이론연구		이론검증연구		지각연구	
	한국(0)	서구(4)	한국(2)	서구(9)	한국(10)	서구(10)
사회적 자원의 확보,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0 ( 0.0)	1 (25.0)	2(100.0)	3 (33.3)	6 (60.0)	6 (60.0)
신체적 건강, 신체적 기능유지	0 ( 0.0)	2 (50.0)	2(100.0)	6 (66.7)	4 (40.0)	5 (50.0)
심리적·정신적 안녕	0 ( 0.0)	2 (50.0)	0 ( 0.0)	6 (66.7)	5 (50.0)	6 (60.0)
자율성, 독립적인 삶	0 ( 0.0)	1 (25.0)	0 ( 0.0)	2 (22.2)	5 (50.0)	4 (40.0)
가족과의 원활하고 친밀한 관계	0 ( 0.0)	0 ( 0.0)	0 ( 0.0)	1 (11.1)	5 (50.0)	5 (50.0)
경제적 준비 및 안정	0 ( 0.0)	0 ( 0.0)	0 ( 0.0)	0 ( 0.0)	5 (50.0)	3 (30.0)
안락한 생활, 일상의 순조로움	0 ( 0.0)	0 ( 0.0)	0 ( 0.0)	0 ( 0.0)	4 (40.0)	1 (10.0)
대접받는 삶, 존경, 과시성	0 ( 0.0)	0 ( 0.0)	0 ( 0.0)	0 ( 0.0)	4 (40.0)	1 (10.0)
생산성, 자원봉사	0 ( 0.0)	1 (25.0)	0 ( 0.0)	4 (44.4)	2 (20.0)	5 (50.0)
활동적인 참여, 다양한 활동	0 ( 0.0)	1 (25.0)	0 ( 0.0)	3 (33.3)	3 (30.0)	4 (40.0)
개인성장, 자기관리	0 ( 0.0)	1 (25.0)	0 ( 0.0)	2 (22.2)	3 (30.0)	2 (20.0)
자식이 잘 성장, 자녀의 성공	0 ( 0.0)	0 ( 0.0)	0 ( 0.0)	0 ( 0.0)	3 (30.0)	0 ( 0.0)
자아 및 현실수용	0 ( 0.0)	2 (50.0)	1 (50.0)	2 (22.2)	1 (10.0)	2 (20.0)
자식이나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0 ( 0.0)	0 ( 0.0)	0 ( 0.0)	0 ( 0.0)	2 (20.0)	0 ( 0.0)
죽음복	0 ( 0.0)	0 ( 0.0)	0 ( 0.0)	0 ( 0.0)	2 (20.0)	0 ( 0.0)
장수	0 ( 0.0)	1 (25.0)	1 (50.0)	0 ( 0.0)	0 ( 0.0)	1 (10.0)
효능감,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0 ( 0.0)	1 (25.0)	0 ( 0.0)	0 ( 0.0)	1 (10.0)	0 ( 0.0)
역할완수	0 ( 0.0)	0 ( 0.0)	0 ( 0.0)	0 ( 0.0)	1 (10.0)	0 ( 0.0)
욕심을 버리는 것	0 ( 0.0)	0 ( 0.0)	0 ( 0.0)	0 ( 0.0)	1 (10.0)	0 ( 0.0)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 상태	0 ( 0.0)	1 (25.0)	0 ( 0.0)	2 (22.2)	0 ( 0.0)	4 (40.0)
목표의식	0 ( 0.0)	1 (25.0)	0 ( 0.0)	2 (22.2)	0 ( 0.0)	2 (20.0)
긍정적 시각, 태도	0 ( 0.0)	0 ( 0.0)	0 ( 0.0)	1 (11.1)	0 ( 0.0)	3 (30.0)
변화에 대한 적응	0 ( 0.0)	1 (25.0)	0 ( 0.0)	0 ( 0.0)	0 ( 0.0)	2 (20.0)
신앙심	0 ( 0.0)	0 ( 0.0)	0 ( 0.0)	1 (11.1)	0 ( 0.0)	2 (20.0)
생명력, 활력, 힘	0 ( 0.0)	0 ( 0.0)	0 ( 0.0)	1 (11.1)	0 ( 0.0)	0 ( 0.0)
지혜와 지식의 전수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1 (10.0)
신체적 외모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1 (10.0)
유머	0 ( 0.0)	0 ( 0.0)	0 ( 0.0)	0 ( 0.0)	0 ( 0.0)	1 (10.0)

주: <sup>1)</sup>N = 각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가 언급된 연구의 수

1980년대와 1990년대에 이루어진 요소들 뿐 아니라 경제적 준비가 되어있는 것, 마음의 편안함을 주고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신앙심, 아래세대에게 지혜와 지식의 전수하는 것, 노년기에도 젊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는 신체적 외모, 유머감각 등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2001년 이후에는 그 이전의 연

구들에 비해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35.7%), 경제적인 준비(21.4%),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50.5%),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상태(42.9%), 신앙심(21.4%)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서구사회에서도 노인의 평균연령이 증가하면서 건강한 노인들이 급증하고 이전 세대의 노인들에 비해 보다 신체적·정신적

으로 짧게 사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들은 노년기에도 보다 젊었을 때의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가꾸고, 힘차게 다양한 사회활동 및 친목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또한 오늘날 인지적 기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것은 평균연령과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매노인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지어 생각해볼 수 있다. 치매노인의 수는 70세 이상 노인에게 있어 급증하므로 앞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진 노인들에게 있어 인지적 기능은 보다 중요한 관심분야가 될 것이다. 이렇듯 시대에 따라 노인들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으며 다양화됨에 따라 이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도 보다 다양한 모습을 띄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으로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에서 파악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대해 연구목적별로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표 5>). 서구에서 이루어진 이론연구와 이론을 검증한 연구의 경우 중요하게 언급되는 구성요소들에 있어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 신앙심, 생명력 등의 요소가 추가된 것 이외에는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검증하는 연구들이기 때문에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노인들이 지각하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론연구나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와는 달리 경제적 안정, 대접받는 삶, 죽음복, 신체적 외모, 유머 등 보다 다양한 요소들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데 있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에서 노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공적 노화의 모습은 다르며 따라서 이들이 중요하게 인식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들을 찾아내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경우, 이론에 대한 연구나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는 매우 적으며, 대부분이 노인들이 지각하는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들이다. 따라서 서구에서 이루어진 지각연구와 한국에서 이루어진 지각연구에서 언급되고 있는 구성요소들의 차이점은 다음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의 성공적 노화 연구에서 파악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차이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다음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 3.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의 성공적 노화 연구에서 파악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연구기간이나 연구목적에 상관없이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성공적 노화의 공통적인 요소와 차이가 나타나는 요소를 살펴보았다(<표 6>). 그 결과

먼저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를 이루고 사회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은 한국연구의 66.7%, 서구연구의 43.5%에서 중요한 구성요소로 언급되었으며, 신체적인 건강은 한국연구의 50.0%, 서구연구의 56.5%, 심리적·정신적 안녕은 각각 41.7%, 60.9%, 자율성과 독립적인 삶은 각각 41.7%, 30.4%, 가족과의 원활하고 친밀한 관계는 각각 41.7%, 26.1%,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각각 25.0%, 34.8%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노화에 도달하기 위해서 신체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 만족하고 행복해 할 수 있고, 가족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가족 외의 다른 사람들과도 긍정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지지기반이 되어줄 수 있으며, 독립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한국의 노인들과 서구사회의 노인들에게 모두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또한 건강이나 적극성과 같은 개인적인 차원 뿐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 가족원과의 친밀한 관계 등의 관계적인 차원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데 있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서구사회와 한국사회에서 강조되는 구성요소에 있어 몇 가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서구의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 데 있어 국내연구에 비해 생산성 및 봉사활동(43.5%), 자아 및 현실수용(26.1%),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 상태(30.4%), 목표의식(21.7%)이 중요한 요소로 강조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연구에서는 서구 연구에 비해 경제적인 준비와 경제적인 안정(41.7%), 안락한 생활(33.3%), 존경과 대접을 받는 삶(33.3%), 자식이 잘 커서 성공하고 자녀성공을 통해 만족하는 것(25.0%)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데 있어 중요한 구성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연구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으나 서구의 연구에서는 언급된 중요한 구성요소로는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 상태(30.4%), 목표의식(21.7%), 긍정적인 시각 및 태도(17.4%), 변화에 대한 적응(13.0%), 신앙심(13.0%), 활력(4.3%), 지혜와 지식의 전수(4.3%), 신체적 외모(4.3%), 유머(4.3%)가 있었다. 반대로 자식이 잘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25.0%), 자식이나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16.7%), 죽을 때 크게 아프지 않고 자다가 죽는 죽음복(16.7%), 역할완수(8.3%), 욕심을 버리는 것(8.3%)은 서구의 연구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으나 한국의 연구에서는 성공적인 노화의 구성요소로 언급되었다. 여기서 서구사회의 노인에게 있어서는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데 있어 노년기에도 목표 지향적이고 적극적이며 노년기에도 생산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개인중심적인 요소들이 중요한데 반해 한국노인들은 적극적이기 보다는 과

&lt;표 6&gt;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

&lt;N=35&gt;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	N (%) <sup>1)</sup>	
	한국(12)	서구(23)
사회적 자원의 확보, 타인과의 긍정적인 관계	8 (66.7)	10 (43.5)
신체적 건강, 신체적 기능유지	6 (50.0)	13 (56.5)
심리적·정신적 안녕	5 (41.7)	14 (60.9)
자율성, 독립적인 삶	5 (41.7)	7 (30.4)
가족과의 원활하고 친밀한 관계	5 (41.7)	6 (26.1)
경제적 준비 및 안정	5 (41.7)	3 (13.0)
안락한 생활, 일상의 순조로움	4 (33.3)	1 ( 4.3)
대접받는 삶, 존경, 과시성	4 (33.3)	1 ( 4.3)
활동적인 참여, 다양한 활동	3 (25.0)	8 (34.8)
개인성장, 자기관리	3 (25.0)	5 (21.7)
자식이 잘 성장, 자녀의 성공	3 (25.0)	0 ( 0.0)
생산성, 자원봉사	2 (16.7)	10 (43.5)
자아 및 현실수용	2 (16.7)	6 (26.1)
자식이나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	2 (16.7)	0 ( 0.0)
죽음복	2 (16.7)	0 ( 0.0)
장수	1 ( 8.3)	2 ( 8.7)
효능감, 자기통제를 잘하는 삶	1 ( 8.3)	1 ( 4.3)
역할완수	1 ( 8.3)	0 ( 0.0)
욕심을 버리는 것	1 ( 8.3)	0 ( 0.0)
높은 수준의 인지적 기능 상태	0 ( 0.0)	7 (30.4)
목표의식	0 ( 0.0)	5 (21.7)
긍정적 시각, 태도	0 ( 0.0)	4 (17.4)
변화에 대한 적응	0 ( 0.0)	3 (13.0)
신앙심	0 ( 0.0)	3 (13.0)
생명력, 활력, 힘	0 ( 0.0)	1 ( 4.3)
지혜와 지식의 전수	0 ( 0.0)	1 ( 4.3)
신체적 외모	0 ( 0.0)	1 ( 4.3)
유머	0 ( 0.0)	1 ( 4.3)

주: <sup>1)</sup>N = 각 성공적 노화 구성요소가 언급된 연구의 수

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순탄하게 잘사는 것이 중요하며, 성공적인 삶을 이루는 것이 자신의 상황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세대의 성공적인 삶 또한 이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의 특성이 강조되기 보다는 관계적인 상황에서 조화를 이루며 그 안에서 개인의 안녕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가치관은 개인이 속해 있는 집단이나 사회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시대적인 상황에 반응한다. 따라서 서구사회와 한국사회의 노인들에게 있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데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구성요소들에 있어서의 차이는 이들의 문화적인 가치관 및 이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시대적인 상황이 반영되어 나타

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먼저 서구사회의 노인들은 산업화를 통해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되었고, 따라서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다. 따라서 현 서구사회의 노인들은 단지 움직이는데 불편하지 않은 정도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보다는 오히려 노년기에도 성취를 하고 생산적인 일에 참여하며, 열심히 일해서 남을 돕는 자원봉사를 하는 것을 성공적인 노화를 달성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이는 또한 인간의 활동을 현재 상황에서 더욱 열심히 사는 것을 강조하는 기독교 정신과도 관련이 있다. 자신의 몸을 돌보기 보다 남을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사회에 환원하는 행위를 높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공황 시기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산업화와 현대화를 통한 경제적인 번영, 또다시 침체된 경제상황을 반복하면서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절대 의존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노인들 또한 가족원이나 지역사회 내의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사회적 지원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시하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또한 개인이 기본 단위가 되어 독립적으로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고, 현재 상황에서 열심히 사는 것을 높이 평가하는 기독교 사상의 영향으로 서구사회에서 중요시 언급되는 구성요소는 타인과의 조화 속에서 이루는 차원 보다는 보다 더 본인 자신 그리고 본인의 삶의 측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노인들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데 있어 중요시하는 구성요소들은 고유의 전통적인 가치관이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유교에서는 理와 氣에 따라 각각의 위치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맞는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 한국노인들에게는 살아가면서 꼭 이뤄야 하는 목표가 되며 이를 완수할 때 자신은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인들의 경우 자신의 부모로서의 할 도리와 자식들이 자녀로서 부모에게 할 도리를 강조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가치와 관련되는 것이다. 또한 개인으로서의 인간보다 관계 속에서의 인간을 더 중요시하는 유교적인 인간관에 의해 한국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는 개인의 성공보다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들과 친밀하고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한국노인들이 중요시하는 독립성이라는 것도 결국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독립이 중요시되는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독립적인 삶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중요시되는 것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또한 한국의 문화적인 특성상 지나침보다는 중용을 강

조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데 있어 생산적인 일에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다양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기보다는 과욕을 부리지 않고 순탄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은 체면문화가 강한 나라로 특히 노년기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대접을 받는 것을 중시하며, 존경과 대접을 받음으로써 자신의 존재의 가치를 높게 판단하게 되어 자신이 보다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었다고 여기게 된다.

한국노인들은 '家'가 존재함으로써 개인인 자신도 존재할 수 있으며, '家'가 성공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도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이라고 동일시한다. 따라서 부모와 자식은 한 몸과 같아서 자식의 성공이 부모의 성공이며, 자식을 잘 키우고 자식이 성공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자신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 데 있어 자식이 교육을 잘 받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화목하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여겨진다.

현 한국노인들은 한국전쟁, 산업화 등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경제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서 살아온 세대로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는 것이 최우선적인 가치였다. 또한 노인복지정책이 부족하여 노후를 국가에게 기대하기 힘들고, 자식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자신의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기 위해서는 경제적 안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기 위해 중요하게 여겨지는 구성요소나 개념은 노인들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겪은 자신의 상황과 경험, 이들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에 의해 형성되어 있는 문화적인 가치 등이 반영되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따라서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노인들이 인식하는 성공적인 노화를 단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 논의 및 결론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이론 및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비교문화적인 접근을 통해 서구사회와 한국사회의 성공적 노화의 차이점과 유사성을 고찰하고, 이를 각 문화의 시대적 배경 및 가치관과 관련하여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한 본 연구의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를 살펴본 결과, 서구에서 보다 빨리 시작되었으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에 들어서 관심을 갖고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서구에 비해 노년

기에 대한 시각이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 얼마 되지 않았으며, 한국노인들의 행복한 노후에 대한 관심 또한 뒤늦게 시작되어 이들이 행복하고 성공적인 노화를 이룰 수 있는데 적합한 대책이나 개입 방안이 시급함을 암시해주고 있다.

둘째,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에서 성공적인 노화의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연구년도에 따라 중요하게 언급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있어 차이가 나타났다. 80년대나 90년대까지는 이론에 대한 연구들로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로 타인과의 긍정적 관계, 심리적 안녕, 독립성, 개인성장 등과 같이 몇 가지 요소들에 한정되었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신앙심, 지혜와 지식의 전수, 신체적 외모 등 보다 다양하고 세부적인 요소들이 추가적으로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기 위한 대책은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목적에 따라 언급되고 있는 구성요소를 살펴본 결과, 노인들이 지각하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에서 언급되는 요소들이 이론이나 이론을 검증하는 연구보다 더 다양한 요소들이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든 노인들이 바라는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이 동일하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으며, 이론이나 이론에서 언급하고 있는 요소들을 확인하는 연구에서는 한정된 요소에 대해서만 설명해줄 뿐, 그 이외의 중요한 요소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해주지 못한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인들의 특성이 변화하고 있으며 보다 다양화됨에 따라 이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모습 또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성공적인 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중요하다고 지각하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밝히는 과정이 필수적인 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에서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는 성공적인 노화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본 결과,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는 부분도 있었으나, 서로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도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들(백지은, 최혜경, 2005; 최혜경 외, 2005; Collings, 2001; Tate et al., 2003)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에 있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요소도 있지만, 노인의 경험이나 문화에 따라 성공적 노화에 있어 중요한 요소나 그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이며, 서구사회의 노인들과 한국의 노인들에게 있어 성공적인 노화를 이루는데 있어 중요하게 여겨지는 요소들에 있어서의 이들이 살아오면서 겪은 시

대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가치가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문화적인 배경이 다른 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를 단일한 개념으로 이해하고 일반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문화적인 가치와 시대적인 경험을 고려하여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고려하여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을 통해 한국사회와 서구사회에서 중요하게 언급되는 성공적인 노화의 구성요소들을 살펴보고, 이를 각 사회의 시대적 경험과 문화적 가치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각 사회의 노인들의 시대적 경험 및 가치관과 성공적인 노화의 관계에 대해서는 통계적 검증이 아닌 문헌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한국노인과 서구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 고유의 전통적 가치관과 성공적인 노화를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작업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내용분석 대상연구들은 60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성공적인 노화 연구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제한적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년기를 맞이할 세대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노년기를 앞둔 세대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각 세대별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셋째, 연구대상자(성, 연령, 인종 등)나 지역(미국, 유럽 등)에 따라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차이를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세분화된 분석유목에 따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공헌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째, 본 연구는 서구사회와 한국사회의 성공적 노화의 구성요소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서구사회의 기준에서 벗어나 한국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를 밝혀 한국노인들의 고유의 성공적인 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둘째, 비교문화적인 접근을 통한 성공적 노화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문화에 따른 성공적 노화의 유사성과 고유성을 밝힘으로써 성공적 노화의 척도개발에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우리나라 노인정책을 수립할 때 한국 노인들이 지각하는 성공적 노화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외국의 성공사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는 성공적 노화의 기준을 밝힘으로써 노인들의 삶에 방향을 제시해주며, 고령사회를 대비하는 한국의 노인정책을 세우는데 기초적 기반이 될 것이다.

- 접수일 : 2007년 01월 15일
- 심사일 : 2007년 02월 09일
- 심사완료일 : 2007년 04월 16일

#### 【참 고 문 헌】

- 강인(2003). 성공적 노화의 지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0, 95-116.
- 고대선 · 원영신(2005).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들의 성공적인 노화의 의미. *한국사회체육학회지*, 24, 413-424.
- 김미혜 · 신경림(2005).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 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5(2), 35-52.
- 김미혜 · 신경림 · 강미선 · 강인(2004). 한국 노인의 성공적 노후에 대한 경험. *한국노년학*, 24(2), 79-95.
- 김은숙 · 김귀분(2002). 노인의 소망. *성인간호학회지*, 14(3), 438-448.
-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2003). 노년기 조망: 중년 세대의 성공적 노화/ 제보자들의 노년기 조망: 성공적 노인상. *여성가족생활 연구보고서3-중년 후기여성의 노년기 전환기 경험*, 63-85.
- 박경란 · 이영숙(2002). 성공적 노화에 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2(3), 53-66.
- 백지은 · 최혜경(2005). 한국노인들이 기대하는 성공적인 노화의 개념, 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1-16.
- 성혜영 · 유정현(2002). 성공적 노화 개념의 인식에 관한 연구 -Q 방법론적 접근-. *한국노년학*, 22(2), 75-93.
- 성혜영 · 조희선(2006). Rowe와 Kahn의 구성요소를 활용한 성공적 노화 모델. *한국노년학*, 26(1), 105-123.
- 신수진(2002). 한국가족 연구의 사회문화적 접근을 위한 소고. *한국가족관계학회지*, 7(2), 21-41.
- 이영찬(2002). *유교사회학*. 예문서원.
- 이환(1999). *근대성 아시아적 가치 체계화*. 문학과 지성사.
- 임희섭(1994). *한국의 사회변동과 가치관*. 나남출판.
- 조금호(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 틀*. 나남출판.
- 조성남 외(2000). 세대갈등과 사회질서 : 세대문제의 영역별 재현과 사회통합의 기제. '98 한국학술진흥재단 인문사회통합 연구과제 미간행 연구보고서.
- 조혜정(1986). 가부장제의 변형과 극복 : 한국가족의 경우. *한국여성학*, 2, 한국여성학회.
- 최혜경 · 백지은 · 서선영(2005). 노인들의 인식을 통한 한국적인 성공적 노화의 개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2), 1-10.
- 통계청(2006). *장래인구추계*.
- 한규석(2002). *사회심리학의 이해*. 학지사.
- 홍현방(2001). *성공적인 노화 개념정의를 위한 문헌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황상민 · 김도환(2004). 한국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세대의 심리적 정체성 : '세대 차이' 연구를 위한 심리학적 모델.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8(2), 31-47.
- Baltes, P.(1993). The aging mind: potential and limits. *The Gerontologist*, 33, 580-594.
- Baltes, P. B. & Baltes, M. M.(1993). *Successful aging-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elson, B.(1952). *Content analysis in communication research*. Glencoe, I.L.: Free Press.
- Charbonneau-Lyons, D. L., Mosher-Ashley, P. M. & Stanford-Pollock, M.(2002). Opinions Of college students and independent-living adults regarding successful aging. *Educational Gerontology*, 28(10), 823-834.
- Chou, K. L. & Chi, I.(2002). Successful aging among the young-old, old-old, and oldest-old chines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54(1), 1-14.
- Collings, P.(2001). "If you got everything, it's good enough" : perspectives on aging successful in a Canadian Inuit community. *Journal of Cross-Cultural Gerontology*, 16(2), 127-155.
- Costa, P. T. Jr., Metter, E., & McCrae, R.R.(1992). Personality stability and its contribution to successful aging. *Journal of Geriatric Psychiatry*, 27, 410-59.
- Crosnoe, R., and Elder, G. H.(2002) Successful adaptation in the later year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5(4), 309-328.
- Crowther, M. R., Parker, M. W., & Achenbau, W.A., Larimore, W.L., & Koenig, H.G. (2002) : Rowe and Kahn's Model of Successful Aging Revisited: Positive Spirituality - The Forgotten Factor. *The Gerontologist*, 42(5), 613.
- Erikson, E. H.(1984). Reflection on the last stage and the first. *Psychoanalytic Study of the Child*, 39, 155-165.
- Fisher, B. J.(1995). Successful aging, life satisfaction and generativity in later lif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41(3), 239-251.
- Fishcer, B. J. & Specht, D. K.(1999). Successful aging and



- creativity in later life. *Journal of Aging Studies*, 13(4), 457-472.
- Freund, A. M., & Baltes, P. B.(1998).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as strategies of life management. *Psychology and Aging*, 13(4), 531-543.
- Friedrich, D. D.(2001). *Successful aging : integrating contemporary ideas, research findings, and intervention strategies*.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 Guse, L. W. & Masesar, M. A.(1999) : Quality of life and Successful Aging in Long-Term Care : Perceptions of Residents. *Issues in Mental Health Nursing*, 20(6), 527-539.
- Hanson, V.(2004). Promoting Successful Aging among Older Adults. *The Gerontologist*, 44(1), 491.
- Ikels, C., Dickerson-Putman, J. & Draper, P.(1995). Comparative perspectives. In Bond, L. A., Cutler, S. J. & Grams, A.(eds). *Promoting successful and productive aging*. Sage: London.
- Keith, J., Fry, C. L. & Ikels, C.(1990). Community as context for successful aging. In Sokolovsky, J.(ed) *The cultural context of aging*. Bergin and Garvey: New York, Connecticut and London.
- Knight, T. & Ricciardelli, L.(2003a) : Positive relationships in the lives of people ageing successfully. *Australian Journal of Psychology*, 55, 227-227.
- Knight, T. & Ricciardelli, L. A.(2003b) : Successful aging : Perceptions of adults aged between 70 and 101 year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56(3), 223-245.
- Martha, B. H. & Meredith, M.(2003). Self, society, and the "New gerontology". *The Gerontologist*, 43, 787-796.
- Martha, R. C., Michael, W. P., Achenbaum, W. A., Walter, L. L. & Koenig, H. G.(2002). Rowe and Kahn's model of successful aging revisited positive spirituality—The forgotten factor. *The Gerontologist*, 42, 613-620.
- Matsubayashi, K., Ishine, M., Wada, T. & Olumiya, K.(2006). Older adults' views of "Successful aging": Comparison of older Japanese and American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4(1), 184.
- Phelan, E. A., Anderson, L. A., LaCroix, A. Z., & Larson, E.B.(2004). Older adults' views of "Successful Aging"-How do they compare with researchers' definitions?. *Journal of the American Geriatrics Society*, 52(2), 211.
- Robson, S., Jones, A., Reynolds, C. & Hansson, R.(2004). A Preliminary structure for strategies to successfully age at work. *The Gerontologist*, 44(1), 141.
- Rowe, J., & Kahn, R.(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 Books.
- Ryff, C. D.(1989). Beyond Ponce de Leon and life satisfaction: New directions in quest of successful aging.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2, 35-55.
- Stern, P. C. & Carstensen, L. L.(2000). *The aging mind : opportunities in cognitive research*. Washington, National Academy Press.
- Strawbridge, W. S., Wallhagen, M. I. & Cohen, R. D.(2002). Successful aging and well-being. *The Gerontologist*, 42, 727-733.
- Tate, R. B., Lah, L. & Cuddy, T. E.(2003). Definition of successful aging by elderly Canadian males: The Manitoba follow-up study. *The Gerontologist*, 43, 735-744.
- Taylor, P. J.(2000). *Ization of the World : Americanization, modernization and globalization*. Colin and Mars.
- Tornstam, L.(1994). *Aldrandets socialpsykologi. raben prisma* : Stockholm.
- Torres, S.(1999). A culturally-relevant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study of successful ageing. *Ageing and Society*, 19, 33-51.
- Torres, S.(2002). Relational values and ideas rRegarding 'Successful aging'.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3(3), 417-432.
- Vaillant, G.E.(1993). Avoiding negative life outcomes : Evidence from a forty-five year study. In Baltes P.B. & Baltes, M.M.(Eds.). *Successful aging-perspectives from the behavioral sciences*(p. 332-358).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illant, G.E., and Mukamal, K(2001), "Successful aging", *Th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8(6), 839-847.
- Wong, P.T.P., & Watt, L.M.(1991). What types of reminiscence are associated with successful aging? *Psychology and Aging*, 6, 272-279.
- Wray, S.(2003). Women growing older, agency, ethnicity and culture. *Sociology*, 37(3), 511-527.